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9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30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재단법인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오늘은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29주년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 74주년이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지 7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자강, 해방 후 나라세우기의 위대하신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오윤겸 중앙고등학교 학생회장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해방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민주건국을 위하여 몸바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평생 친구요 동지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시면서 지조와 경륜, 애국심을 겸비한 선생님의 독야청청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평생의 동지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초대대법원장께서도 평소에 고하선생을 조선시대에서 이윤곡과 함께 가장 존경할 인물이라고 말씀하시었고 가인은 임종의 순간에서도 고하선생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셨다고 합니다.

금년은 선생님이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획책하신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당시 조선 2천만 민중은 누구든지 국권회복을 위한 기회가 오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로 눈을 돌리면 만주벌판에서의 무

장독립투쟁을 하신 선열들,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몸바치신 애국지사들, 노령이나 연해주 등지에서 활약하신 지도자들, 미주와 구주에서 일제의 불법 강점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앞장 선 선각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곳에서 치열하게 추진되어 온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이에 호응하여 연결해주고,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해주고, 귀한 인쇄용 한글활자를 보내주며 해외독립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린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들도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인사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굴종과 착취만이 강요되던 조선내의 독립운동의 중심점에는 고하선생이 우뚝 서 계십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을 도모하고 출옥 이후에는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항일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1918년 가을부터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론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중앙학교 숙직실을 본부로 삼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승만의 밀사 여운홍(呂運弘)을 만나 구미 독립지사들의 동향을 파악했고, 동경유학생그룹이 파견한 밀사 송계백(宋繼白)을 통하여 2·8독립선언서를 받아보고는 전의(戰意)를 다졌습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현상윤, 김성수, 그리고 현상윤을 통하여 그의 은사인 최린과 동지 최남선을 무수히 접촉하시었고, 주로 학생의 조직과 동원을 맡았습니다.

동경의 평생 동지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와 연락하면서 2·8독립선언서 인쇄에 필요한 한글활자와 자금을 보내고 거사지침을 상의하였습니다. 최린은 천도교를, 현상윤은 김도태를 통하여 정주의 이승훈을 접촉하여 거대한 천도교 및 기독교세력의 합동을 성취했습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33인만이 민족대표로 서명했으나 제2진, 제3진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추진주체인 선생님 등은 서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일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함께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루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독립운동의 거사를 도모하고 추진한 국내지도자들을 33인과 48인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함은 독립투쟁의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기념사업에는 고하선생을 중심으로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의 첫 횃불을 올린데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극소수의 지도자가 주도한 것처럼 민족저항의 역사를 잘못 서술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던 3·1운동의 결과는 국내에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함으로써 무단정치의 완화를 가져왔고, 해외에서는 흩어진 동포들의 단결을 촉구했으며 마침내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정은 끊어졌던 주권을 다시 소생시켜 해방될 때까지 법통을 이어오게 한 회천대업(回天大業)의 기틀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이 만나 비핵화문제를 다루는 등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던 8천만 민족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굽어 살피 주십시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서울중앙고등학교 오윤겸 학생회장님, 추모사를 해주실 이용기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박유철 광복회 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께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